

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위한 민관 연구개발 협의체 출범

-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전문가와 협력하여 현장 수요 기술개발 논의

환경부(장관 김완섭)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월 19일 오전 엘더블유(LW)컨벤션(서울 중구 소재)에서 ‘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연구개발(R&D) 협의체’를 출범하고 이날 착수회의를 갖는다.

이번 협의체에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대표하는 △한국화학산업협회, △한국시멘트협회, △한국반도체산업협회, △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, △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등 관련 협회 및 연구조합을 비롯해 17개 기업*, 환경기술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.

* 화학 4개, 시멘트 5개, 반도체·디스플레이 4개, 철강 4개

이날 착수회의에서는 ‘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’ 달성을 위한 △최신 탄소중립 기술시장 정보 공유, △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업종별 필요 기술 논의, △민관 협력 기술개발 과제 발굴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.

또한 환경부는 협의체를 통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기술 적용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하고,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(R&D)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.

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술은 ‘환경 연구개발(R&D) 혁신위원회*’의 자문을 거친 후 구체적인 사업 기획이 추진될 예정이다.

* 환경 연구개발 발전 및 추진을 위해 환경부 및 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

아울러 환경부는 필요할 경우 관련 부처와 이행체계를 구축하여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.

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“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이 향후 산업계를 견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”이라며, “민관 협력을 통해 선제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고,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연구개발(R&D) 협의체 구성·운영(안). 끝.

담당 부서 <총괄>	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	책임자	과 장	권병철	(044-201-6660)
		담당자	사무관	박진형	(044-201-6667)
	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후대기기술실	책임자	실 장	김경환	(02-2284-1340)
		담당자	책임연구원	김동근	(02-2284-1343)



□ **목적**

-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장과의 실무협의체 구성·운영으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신규 탄소 감축 R&D사업 발굴
 - 기술개발 등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 수렴과 정부 지원방안 등 논의

□ **협의체 개요**

- (구성) 환경부, 한국환경산업기술원, 산업계, 전문가 등으로 구성
 - ※ 분과별 간사 : 한국환경산업기술원

주요업종	철강	석유화학	시멘트	반도체/ 디스플레이
산업계 구성	포스코 등 4개,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	LG화학 등 4개, 한국화학산업협회	한일시멘트 등 5개, 한국시멘트협회	삼성전자 4개,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

- (역할) ① 탄소중립 기술시장 동향 공유, ②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업종별 필요 기술 논의, ③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과제* 도출 및 적정성 검토 등
 - * 민간주도로 개별 기업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핵심 기술수요 등 요구 사항
- (운영) 분기 1회 개최 원칙
 -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수시 개최 가능하며, 안전이 경미 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 진행

□ **향후 일정**

- 협의체 착수회의 개최('25.3.19.~24.)
- 업종별 탄소감축 기술수요조사 및 기술자문(~'25.6월)
- 과제 확정(혁신위원회, '25.7월) 및 기획보고서 작성('25.7월~)